

미·유럽발 공포...금융시장 요동

외국인 매도 행렬...지수 2000 무너지나

美 신용등급 강등 우려 확산에 불안

미국 더블딥(이중침체) 우려에 이어 이탈리아와 스페인 국제 문제까지 부상하면서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코스피는 이틀간 1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으며 채권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경기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코스피 추락...환율·채권 급등 =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100포인트 넘게 빠졌다. 3일 코스피는 55.01포인트(2.59%) 급락해 2066.26를 기록했다.

이틀 전만 해도 미국 부채한도 증액 협상 타결로 크게 올랐던 코스피는 하루 만에 폭락, 전날 51.04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이날도 50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미국 더블딥 공포가 부각되자 외국인들은 이틀 연속 매도 우위를 보여 1조1510억원의 순매도했다.

아시아증시도 이틀 연속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지수는 2.11%, 대만 가권

지수는 1.49% 각각 내렸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 잠잠했던 모습과는 달리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환율이 올라 전날보다 9.60원 오른 1060.40원에 마감했다.

미·유럽 위기 재무상 = 예상과 달리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것은 그동안 미 부채상환 문제에 쏠려 있던 시장의 시선이 경기 상황으로 움직였기 때문이다.

부채상환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거나 장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잇달아 경고한 것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미국발 악재가 눈덩이처럼 커진 상



미국발 경기 둔화 우려로 3일 코스피가 불과 이틀 만에 106포인트 넘게 급락해 전날보다 55.01포인트(2.59%) 내린 2,066.26에 장을 마감했다.

황에서 이번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제 문제까지 부상하고 있다. 한범호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거나 장기 침체로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이 1~2%를 웃돌아 더블딥 가능성은 적고 주력경기 등의 전망도 최악은 아니어서 장기 침체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유가공업체도 생산 차질

원유 공급 중단에 매일유업 등 공장 가동 줄어...소비자는 차분

낙농업계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원유 공급을 한시 중단한 3일 지역 유가공업체의 생산이 차질을 빚었다.

아직 유가공업체의 원유 재고분이 남아있는데다, 유류업체도 6일까지 재고량을 보유해 우유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지 않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유 대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3일 전남낙농협회와 매일유업 광주공장, 남양유업 나주공장 등에 따르면 전남낙농우유협회는 이날 '집유

거부운동'을 펼치고 남양유업 나주공장과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원유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하루 130t의 원유를 공급받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의 가동률은 70%에 머물렀으며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70t의 원유를 공급받지 못해 한때 공장 가동을 최소화하는 등 우유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광주·전남과 전북 일부, 경남 일부 지역을 우유 보급원으로 두고 있으며 매일유업 광주

공장은 광주·전남북과 대전을 보급권으로 두고 있다. 전남지역의 원유 수급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데다 일부 원유 냉각기가 부족한 농가들이 이날 오후 집유한 원유를 공급해 유제품 출고량이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유가공업체들은 대형마트 등 소비자가 우유를 직접 사는 판매처에는 기존과 같이 공급하고 커피 전문점·제과점 등 우유를 재료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공급하는 물량을 줄여

공급량을 맞출 계획이다. 유류업체에서는 아직 원유 공급 중단 충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우유가 공급됐으며 소비자들의 큰 동요는 없었다.

이마트 상무점 관계자는 "몇몇 고객들이 1ℓ 크기 우유를 5개씩 구매하는 일도 있었지만 사재기나 상품 미진열 등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는 5일을 최종시한으로 앞두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타협이 안될 경우 무기한 원유공급중단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for '전복장터' (Abalone Market) featuring various seafood dishes like 전복구이, 전복스팀, 전복우어찜, and 전복스프. Includes contact info: 062-576-8600.

Advertisement for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2010 Korea Food Expo COEX) featuring '월드덕' (World Duck) brand food products and a chef. Includes contact info: 0621671-2177,1177.



일상 속 학습

방학이다. 초등학생인 아들을 위해 마당에 튜브 수영장을 두 번쯤 개장(?)했으며 한 차례 여행도 다녀왔다.

방학은 새로운 공부거리 찾기가 휴식인 시간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골 우리집은 늘 것 천지이면서 공부할 것 투성이다.

먼저 실험을 하기 위한 도구도 함께 구해왔다. 그리고 실험 단계를 찾아가면서 "재미있을 것 같다"며 말에는 무척이나 흥분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데이터 불통 사태로 불편을 겪은 가입자에게 보상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LGU+, 데이터 불통 보상

베이킹소다·식초 섞어 세제 만들고 밤하늘 별자리 찾아 보며 과학공부



당한 창의성을 요하는 일이다. 똑같은 풀로 완전히 다른 세계의 음식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도 상당한데 그 즐거움을 아이와 함께하려 노력한다.

그렇게 만든 것들로 손님 상 중앙에 내놓고 먹는데 잠시 아이들은 요리사가 된 기분을 맛본다. 거기에 나는 또 다른 공부까지 보탬 욕심으로 탄수화물과 비타민 등을 설명하면서 5군 음식의 조화를 설명하곤 하는데 아이들은 무척이나 흥미로워한다.

〈'당면의 열 두 달 살림' 저자〉 jazzchants@hanmail.net

진로, 해외 진출 본격화

泰 기업과 수출 계약...내달부터 中·美 판로 개척

(주)진로는 3일 '참이슬 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 '진로' 제품에 대해 태국 분터그룹과 수출·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분터그룹은 싱하맥주(Singha Beer)를 제조·판매하는 태국 대표 맥주기업으로, 진로는 이번 계약을 통해 태국 현지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와 오는 9월 범인통한 예정으로 중국, 태국, 미국 등 수출활동 개척을 통해 2015년까지 해외수출액 2억달러 등 해외법인을 포함한 글로벌 부문 매출 8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진로 관계자는 "2013년까지 200만병 판매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음용층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현지 프로모션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